

5월 10일(월) / 욥 40-42

▶ **내용요약** : 욥기 3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설명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셨다. 이에 40장에서 욥은 자신의 입을 가리며 겸손히 엎드렸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에 대해서 41장에서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묘사하셨다. 이 두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생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 결국 42장에서 욥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집을 세우시고 재물을 갑절로 회복시키셨다. 뿐만 아니라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다시 허락하셨다. 이러한 욥의 회복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다.

▶ **질문** :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몇 명의 자녀를 다시 주셨나? (42장)

▶ **생각하기** :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을 경험하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합리한 세상을 이겨내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5월 13일(목) / 시 9-12

▶ **내용요약** : 시편 9편은 감사로 시작하는 다윗의 찬송시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언하며 찬송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자 심판자이심과 동시에 압제 당하는 자들을 위한 요새이시기 때문이다. 10편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탄식으로 시작한다. 시편기자는 악인들의 횡포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괴로웠다. 그러나 그럼에도 영원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확신했다. 11편은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악인들의 번성을 목격하며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정직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12편 또한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는 현실을 아뢰었다. 그러나 악인의 입술과 달리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 **질문** : 여호와께서 끊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12편)

▶ **생각하기** : 악인들의 득세로 인하여 불평할 때가 있다. 심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자.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자.

5월 16일(일) / 시 21-24

▶ **내용요약** :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이다. 먼저 시편기자는 주의 힘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왕의 모습을 노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베푸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왕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더 나아가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그분을 찬송했다. 22편은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고백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의 고난은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훈하며 소망

5월 11일(화) / 시 1-4

▶ **내용요약** : 시편 1편의 장르는 '지혜시'로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 특히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시편 2편은 세상의 교만한 권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고, 그들에게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자들은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탄원시이다. 다윗은 자신의 수많은 대적으로 인해 탄식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4편 또한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요청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기를 교훈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 **질문** :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은 나무와 같은가? (1편)

▶ **생각하기** :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했다. 그래서 그의 탄식은 소망으로 이어졌다. 기억하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절망은 찬송과 감사로 변할 것이다.

5월 14일(금) / 시 13-16

▶ **내용요약** : 시편 13편은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대적들의 조종과 공격으로 인해 번민하며 근심했다. 뿐만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14편 또한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과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고백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베푸실 구원을 기대했다. 15편은 제의를 위하여 들어갈 때 부르는 다윗의 노래이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누가 주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교훈함과 동시에,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있다. 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노래했다.

▶ **질문** :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4편)

▶ **생각하기** : 다윗은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내러 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아픔과 상처가 누군가를 치료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을 노래했다.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임을 다짐했다. 2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노래이다. 다윗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찬송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교훈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

5월 12일(수) / 시 5-8

▶ **내용요약** : 시편 5편은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특히 그는 자신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였다. 동시에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6편은 다윗의 참회시이다. 다윗은 연약해진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아뢰며 치유와 회복을 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다. 7편 또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노래이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며 구원을 요청하였다. 다윗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면서 악인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 경고했다. 8편은 다윗의 찬송시이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였다.

▶ **질문** : 다음 빈 칸을 채우라. (8편)  
"주의 (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 **생각하기** : 찬송은 구원 받은 이들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고 고귀한 분이시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할 정도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묵상하며 찬송하자.

5월 15일(토) / 시 17-20

▶ **내용요약** :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이자 그의 개인적인 탄원시이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길 요청했다. 18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부른 노래이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심을 고백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다. 19편은 다윗의 찬송시임과 동시에 교훈시이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피조세계를 노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증언하며 그 길을 따르도록 교훈했다. 20편 또한 다윗의 시이다. 본문은 왕을 위한 축복, 승리에 대한 확신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승리는 왕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질문** :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19편)

▶ **생각하기** : 왕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전쟁의 선봉에 서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 기도하자.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자.

▶ **질문** : 다음 빈칸을 채우라 (23편)  
"여호와와 나의 ( )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생각하기** : 22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예언한 것이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난과 조롱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끝에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자.